

나주시, 소상공인·청년 창업가 경영 안정 융자 지원

연 1%저리 최대 5000만원 한도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전남신용보증재단 수시 접수
“지역경제 회복 활성화 노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나주시는 5월 한 달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소득 융자지원에 관내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자금을 연 1%의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융자 지원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지원은 선(先) 사업 추진 후(後)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

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융자 실행 시 연 2~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선(先) 대출 후(後)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자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와 민생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큰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간부급 공직자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7일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및 청렴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약식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공직자들이 참석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나주시 조성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알선 및 정탁 배제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축,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약식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빚가람 청렴 실천네트워크에서 회원기관 간 공동 운영하는 청렴 릴레이 챌린지로 진행했다.
공직사회 내 청렴의 가치를 심어주고 나주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맑은 윗물이 되어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면 시민들이 신뢰하는 청렴한 나주시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23일 개막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

알싸한 맛이 입안 가득히 퍼지며 막힌 코가 뚫리는 숙성 홍어를 배불리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축제가 5월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에서 열린다. 올해는 폭 삭힌 홍어, 묵은김치, 돼지 수육을 곁든 홍어삼합에 명품 나주 한우를 더한 남도 미식 대향연이 더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 축제인 영산포 홍어축제는 올해부터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남도 최대 축산업 중심지이자 연평균 1만5000여 한우가 거래되는 영산포 우(牛)시장이 자리한 지역 특성을 살려 한우 상설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숙성 홍어를 소재로 시식과 홍어 무침 나눔, 50% 할인 판매, 경매, 4행시, 상식퀴즈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노안 정고집, 다도 참주가를 비롯해 숙성 홍어와 찰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종을 맛볼 수 있는 전사·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워줄 초대가수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미스터트롯 장민호와 효려 가수 현숙을 비롯해 현진우, 차효린, 이청아 등이 영산강을 배경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에는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돼 있다.

축제장 인근은 만개한 꽃양귀비로 붉게 물들 예정이다. 관광객들이 사진 속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꽃밭 곳곳엔 포토존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 가족축제’ 빚가람호수공원서 16일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 빚가람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 가득한 ‘나주시 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나주시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 가족, 5월에 친해 봄! 함께 봄!’을 주제로 나주시립합창단 공연, 태국 전통춤, 행복(모범)가정상 유공자 표창과 10여 개의 체험(디지털 & 미디어버스, 수소로켓, 양말목 케네이션, 보틀랩 등) 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체험부스에는 가족생애주기 ‘임산부&노인체험’이 눈길을 끈다. 이는 가족, 친구, 사회 모두가 알아야 할 가족 공감체험으로 단순한 이벤트성 체험의 의미를 넘어 가족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자 준비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골든벨’을 운영하고 늦은 오후에는 도심 속 캠크닉(캠핑+피크닉) 분위기를 조성하고 야외 극장에서의 영화(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감상을 통해 추억과 재미가 함께하는 잊지 못할 가족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025 나주시 가족축제에 대한 자세한 세부 일정은 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나주시 가족아동과(061-339-8482)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가족 축제를 통해 가족 간의 소중함 시간을 함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지난 7일 나주소방직원이 금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 직업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시행 했다.

나주소방 제공

나주소방 ‘119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전라남도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가 지난 7일 관내 금성중학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119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소방 직업에 대한 이해와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2일 나주소방에 따르면 이번 체험교

실은 이론 교육과 실습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전남도 내 각 지역에서의 소방활동 사례,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며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실습 체험에서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하임리히법 등

급처치 실습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정 체험(악력·배근력 측정) △방화복 착용 체험 등이 진행됐다.

나주소방서관계지는 “청소년들이 소방의 가치와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안전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소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축협 가축시장 재개장 ‘활기’

지역 한우 출하 우선권 부여

구제역 예방을 위해 잠시 문을 닫았던 나주축협 가축시장(우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3월14일부터 임시 폐쇄한 가축시장을 지난 7일부터 재개장했다고 12일 밝혔다.

본래 가축시장은 매주 금요일에 열리지만 지난 두 달여 간 한우 거래 중단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한우 농가 여건을 감안해 이날 재개장에 맞춰 송아지 특별 경매를 진행했다.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영암,

무안 지역 사육 한우는 3km 방역대 이동 제한이 전면 해제된 이후 때까지는 나주축협 가축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나주시는 지역 농가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역에서 사육 중인 한우(나주 한우)에 출하 우선권을 부여했다.

앞서 시는 그동안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속한 백신 예방접종 및 소독약 배부, 공동방제단 소속,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발 빠른 대응에 힘입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구제역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재개장한 나주축협 가축시장 현장을 방문해 한우 농가주들을 격려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적정 출하 시기를 놓친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가축시장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나주 한우에 대한 출하 우선권을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 체계 유지를 통해 가축전염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